

✓ CHECK

국어영역의 세부 영역별 올바른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 전략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평가원기출문제

SOLUTION을 적용하여 평가원 기출 문제를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SOLUTION — 문학: 현대 시 - 표현 기법

### Check.

- ☑️ 작품을 읽을 때 비유 관련 표지(-듯, ~같은 등), 특정 시어나 시구가 반복되는 경우, 대구적 표현이 쓰인 경우, 의문형/명탄 등의 종결 어미, 대화적 구성/말을 건네는 방식 등,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 가능한 표현 기법들을 의식하며 읽는다. 이를 통해 표현 기법 관련 문제를 풀 때, 해당 표현 기법과 관련된 선택지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 ☑️ 읽으면서 해결되지 않은 표현 기법 관련 선택지들은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시문에서 찾아 확인한다.
- ☑️ 이때, 전건의 표현 기법이 적절하다 해도 후건의 진술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표현 기법이 활용된 곳에 후건에서 제시된 정서나 태도 등이 드러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 2023학년도 수능

<p>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수염을 드러운 빛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브란, 그리고 울타리엔 담밭을 이룬 년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이 ㉠ <u>지극히</u>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져 아찔없고 받아서 아찔 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영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 없나니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을 알라 오직 여기에 목숨의 유연과 천지와 화합에 있거니</p>	<p>→ '채전'에 있는 채소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채전'이라는 시적 공간이자 대상을 구성하는 것들을 통해 '채전'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p>
<p>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나비가 심방 오고 풍뎡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 가고 그들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다시 나오 ..... 이같이 ㉡ <u>많은 손</u> <u>님들</u>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이 <u>지극히</u>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 - 유치환, 「채전」 -</p>	<p>→ '-일라'라는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뒤에 연결되는 '족할 줄을 일라'라는 화자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p>→ '나비', '풍뎡이', '잠자리' 등을 '손님들'이라고 의인화하고 있다. '손님들'을 통해 화자는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p>→ 5행에서 쓰인 '지극히'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범속한 것들'로 인해 느끼는 '충족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p>

- ㉠을 수식어 반박하여 '범속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
- ㉡에서 사물을 인격화하여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 (X)

## DAY 1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행이상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근대 서양 철학의 기틀을 마련한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별개의 실체로 구분하고 육체에 대한 정신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정신과 물질은 하나의 실체가 서로 다른 양태로 **①** 구별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당대의 철학자들이 도외시했던 인식과 정신의 관계에 대해 통찰하였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는 자기 보존을 지향하며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경향적인 코나투스<sup>1)</sup>가 주어졌 있다. 또한 그는 분노, 공포, 불안, 인인, 빈안함, 충족감 등의 정서불 인간이 자기 보존에 불리하거나 유익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체가 반응한 결과로 이해하였고 이러한 정서들을 크게 기쁨, 슬픔, 욕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스피노자는 기쁨과 슬픔을 외부의 영향에 의해 코나투스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의 감정 상태로 규정하였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슬픔을 회피하려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정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외부의 자극에 의해 생겨난 정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인간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념에 **②** 예속되어 감정의 중요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정념에 의한 감정의 중요성은 '이미지'를 토대로 세계를 인식할 때 발효하는 것이다. 이때의 '이미지'란 외부의 자극이 우연적, 파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식할 때 생성되는 관념을 뜻한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적합한 인식'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정념에 지배되는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적합한 인식'은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 외부의 사물과 자신의 정서가 맞는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욕망은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서이다. 욕망을 신체에 대한 이성의 통제를 방해하는 요소로 파악한 데카르트와 달리 스피노자는 욕망을 이성의 힘을 통해 코나투스가 능동성을 띠게 된 상태로 이해하였다. 즉, 스피노자의 욕망은 정신에 기반한 이성의 양태가 신체에 기반한 작용으로 반응된 것으로, 욕망에 의해 추동되는 삶은 곧 자신과 다른 사물 간의 필연적 인과성을 의식하며 자기 보존의 역할을 확장하는 삶을 의미한다.

(나)

성리학에 따르면 만물의 질료인 기(氣)는 만물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불변의 원리인 리(理)에 따라 운행된다. 다만 리와 기는 개념적으로만 구분될 뿐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 떨어져 나타나지 않으며 인간의 마음 역시 리와 기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16세기 조선의 퇴계는 이러한 전통적 이기론을 기반으로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설명하였다. 사단칠정이란 본래 유학에서 인간의 네 가지 마음과 일곱 가지 감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③** **산단**은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는 측은지심,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수오지심, 타인에게 이익을 양보하고자 하는 사양지심, 선악을 구별하는 시비지심으로, 각각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을 실천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④** **칠정**은 인간이 외부 사물을 접하면서 표출되는 일곱 가지 감정으로,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싫어함, 바람을 뜻한다. 퇴계에 따르면 사단은 마음의 리가 **⑤** **발현**한 것이

므로 순수하게 선한 반면, 칠정은 기가 발현한 것이므로 악할 수도 있다.

퇴계는 리를 추상적인 원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기처럼 온 동성을 갖고 현실 세계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기존의 성리학자들에 비해 리의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리와 기를 귀천의 관계로 파악하고 리를 도덕적 이성, 기를 욕체와 각각 연결함으로써 리가 기를 **⑥** **제어**하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이 이익과 욕심에 **⑦** **검도**된다고 보았다. 이에 퇴계는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거경궁리(居敬窮理)를 제안하였다. 격물치지는 자연 만물의 리와 기에 관해 탐구하는 것을, 거경궁리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격물치지를 꾸준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거경궁리의 '경(敬)'은 엄숙한 태도를 뜻하는데, 퇴계는 경의 자세로 공부하면 기에 의해 나타난 정서적 혼란이 사라지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 리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요컨대 퇴계는 인간이 욕체를 지닌 존재로서 외부 사물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상적인 인간, 즉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양을 통해 리의 능동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문+문항

평가원의 출제 요소들이 담긴  
대성학원 콘텐츠 기출 문항들을  
엄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01 (가)에 나타난 스피노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존에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한다.
- ② 인간이 아닌 사물도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③ 슬픔이나 기쁨은 인간의 정신이 외부의 상황에 대해 판단한 결과이다.
- ④ 능동성을 갖춘 코나투스의 작용은 정념에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 ⑤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감정의 제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02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리학에서는 사물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원리가 각 사물이 이루는 질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 ② 성리학에서는 기가 발현하여 표출되는 감정을 매려해야 선한 마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성리학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달리 인간의 마음에서는 리와 기가 서로 분리되어 작용한다고 보았다.
- ④ 격물치지는 욕체로 인한 정서적 혼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는 자세이다.
- ⑤ 거경궁리는 기를 제어하여 인의예지를 실천하기 위해 내면의 리를 고양하는 태도이다.

◀ 다시보기

주요 지문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며 분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시 보기 문태준, 「맨발」  
김광균, 「노신」

(가)

어물친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뿔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아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뿔과 들숨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른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려가 개조개는  
최초의 공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공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람을 일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땅을 건드듯이 맨발  
을 가슴에 묻고 들숨을 건드렸으리라  
아- 하고 짐이 올 때  
부르른 맨발로 양식을 박탈하려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발발발발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 문태준, 「맨발」 -

(나)

시를 읽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汽笛) 소리 차마를 스쳐 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벽에 밑에  
방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땀을 연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生活)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살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五臟)을 씻어 내린다.  
노신(佛身)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냇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사어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굴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감상 포인트

(가) 문태준, 「맨발」

화자	「나(표면에 드러남)」
대상	「개조개의 맨발」
상황	개조개의 삶에 대한 상상을 통해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드러냄.
성격	성찰적, 사색적

● 주제 고난을 헤치고 온 삶에 대한 성찰과 연민

(나) 김광균, 「노신」

화자	「나(표면에 드러남)」
대상	상계를 걱정하는 화자의 처지, 화자와 동일시되는 「노신」
상황	현실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화자가 「노신」과 동질감을 느껴 끼여 위안을 얻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얻은 상황
성격	고백적, 의지적

● 주제 생계의 어려움에 대한 시인의 고뇌와 극복 의지

[88-70] (현대 시)

(가) 장지용, '나비',  
(나) 김해순, '고층 빌딩 유리창뒤의 편지'

6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가)에서는 현실적 표현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저녁엔 해가 뜨고 / 아침엔 해가 쬐다.', '해가 뜨는 아침', '해가 뜨는 저녁' 등에 현실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저녁에 빌딩을 내려오면서 지는 해가 뜬다고 여기고, 아침에 빌딩을 올라가면서 뜨는 해가 졌다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저녁엔 해가 뜨고 / 아침엔 해가 쬐다.'  
아침엔 해가 쬐다.

해가 뜨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며  
나는 바라봅니다.  
낮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피자는 평평함.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오답 해설

㉢ (가)에서는 반복, 정중이 쓰인 표현을 발견할 수 없다. (나)에서는 4연에서 '창문'이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고, '창문을 열면', '다시 열린 / 창문, 창문, 창문'을 통해 정중적 표현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부각하는 것이지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 (가)는 특정한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도 화자는 경어체를 사용하며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나 '당신'은 화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한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

㉤ (가)는 '가열어라', '두서위라'와 같이 '-어라'라는 간접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간접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 (가)는 '가을 하늘이여'에서 계절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나) 또한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Q & A

Q. '반어법'과 '역설법'의 개념과 예시가 궁금해요.

A. '반어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 반대로 서술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김소월 '먼 후일'의 '한 구월인' '먼 후일'등신이 첫 소문 / 그대에 내 말이 '있었노라.'는 반어법이 사용된 시구입니다. 화자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임에도 '있었노라'라고 말할 것이라 했으므로 반어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역설법은 모순되는 사실을 통해 진실을 전달하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나)의 '저녁엔 해가 뜨고 / 아침엔 해가 쬐다'는 역설법이 사용된 시구입니다. 실제로는 자제가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뜨지만, 이러한 현실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9 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나)의 '한 마리 풍뎡이'는 '망 한 칸 없는 사람들'과 달리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므로 '한 마리 풍뎡이'와 '망 한 칸 없는 사람들'이 대비된다고 파악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풍뎡이'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만 할 뿐 실제로 타인과 소통하며 교감을 나누고 있지는 않으므로, 타인과 교감을 나누는 화자의 모습을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가)의 '새록 돋은 '불꽃'은 산장 내부의 따뜻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드러내며, '후 두 두 두' 타리는 '나수'는 산장 밖의 상황을 드러낸다. 이러한 시어를 통해 산장 내부와 외부의 이질성이 부각되고 있다.

㉢ 화자는 '산장' 안에 있는데, '초침 소리'가 '유달리 똑딱거리네' 것은 산장 안이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적막한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가)의 '한 조각 비 맞은'은 나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마찬가지로 나비의 상태를 보여 주는 '날을 기치도 없이'와 연결되어 대상의 현재 상태를 보여 준다.

㉤ (나)에서 '한 마리 풍뎡이'가 될 화자는 '창문을 열'어도 계속해서 '창문'이 나오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밖에도 창문을 여닫고', '달' '나'다. 이를 통해 외물이라는 상황에도 자신의 행동을 지속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70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포인트 해설

시선의 기능

- 시적 상황과 결부되어 상상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를 드러냄.  
- 화자 이외의 존재나 화자의 본신이 등장하여 또 다른 시선의 주체가 됨.  
-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낱말·형상화함으로써 화자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정답 해설

㉡ (모)가에 따르면 화자 이외의 존재나 화자의 본신(分身)이 등장하여 또 다른 시선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선의 주체는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낱말·형상화한다. '어린 나비가 파악 붙어 들어다본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므로, 화자가 아닌 주체가 관찰한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모)가에 따르면 화자의 시선은 시적 상황과 결부되어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날짜가 미리 붙은' '결린 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데, '이튿날 날짜', '이제 차를 밟고 날음' 등을 통해 화자가 날이 밝으면 산행을 시작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구브레'만이 나갈 연봉 산책 길은 화자의 등산로라 할 수 있으므로, '날짜가 미리 붙은' '결린 달'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구브레' 뿐이 나갈 연봉 산책 길'에 대한 상상을 촉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모)가에 따르면 (가)의 '나비'와 같은 화자 이외의 존재나 화자의 본신이 등장하여 또 다른 시선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가)의 맥락을 참고할 때 '사물'이 붙어 있는 이 자제화 한 쪽은 '에서' 화자에서 나비로 시선의 주체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화자는 산장 내부에 있고, 나비는 산장의 창밖에 있으므로 두었인가 '달'이 있는' 것을 보는 주체는 '나비'가 될 것이다. 즉 '날짜가 붙어 달'이 있는 이상스런 계절을 포함한 '날' '날짜'와 '붙어' '부리'는 또 다른 시선의 주체인 나비가 화자가 처한 상황을 형상화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 (모)가에 따르면 (나)의 '풍뎡이'와 같은 - 화자 이외의 존재나 화자의 본신이 등장하여 또 다른 시선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선의 주체는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낱말·형상화함으로써, 화

★ 포인트 해설

포인트 해설을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Q&A

학습 과정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Q&A로 수록하여 학습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